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연구: 특질 용서, 결혼 만족 및 잘못 관련 특성과의 관계*

조 영 주[†]


한경국립대학교 / 교수

이 연구는 부부가 가장 크게 상처를 주거나 받은 잘못을 중심으로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간의 관련성과 차이를 살펴보고, 부부 용서와 특질 용서, 결혼 만족, 잘못 관련 특성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기혼 남녀 588명으로부터 수집한 설문 자료를 상관분석, 대응표본 *t*-검정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의 잘못의 심각도에 비해서 자신의 잘못의 심각도를 낮게 보고하였고, 배우자 용서 수준은 자기 용서 수준보다 낮았다. 둘째,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모두 특질 용서 및 결혼 만족과는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있었고, 잘못의 심각도와는 유의한 부적 관련성이 있었다. 셋째, 배우자 용서는 결혼 만족과 상대적으로 더 큰 관련성이 있었고, 자기 용서는 특질 용서와 상대적으로 더 큰 관련성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고, 이론적 함의와 상담 실체에 대한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배우자 용서, 자기 용서, 특질 용서, 결혼 만족, 잘못 관련 특성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A8051441).

† 교신저자 : 조영주, 한경국립대학교 브라이트칼리지,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Tel: 031-670-5414, E-mail: yjcho@hknu.ac.kr

 Copyright ©2026,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부부는 대표적인 이자 관계로, 다른 대인관계에 비해서 일상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정서적으로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에 부부는 힘들 때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을 겪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한다. 부부는 성격, 가치관, 생활 습관 등이 달라서 크고 작은 불일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자신과 배우자 간의 차이와 불일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를 틀림과 잘못으로 인식하고 평가하게 되면 관계 갈등과 불화가 생길 수 있다. 이처럼 두 사람 간의 차이에 기인한 부부 갈등도 있지만,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과 같이 명백한 잘못으로 인하여 부부간 불화가 생기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잘못으로 인해 주고받은 상처를 제대로 돌보고 치유하지 못하면, 부부 갈등이 심화되고 중국에는 결혼 관계의 해체에 이를 수도 있다. 통계청(2017)은 이혼 사유를 성격 차이, 경제 문제, 배우자 부정, 가족 간 불화, 정신적, 육체적 학대, 건강 문제 순으로 보고하였는데, 좀 더 명확하게는 이러한 문제나 잘못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배우자의 잘못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혹은 자신의 잘못으로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이를 다루기 위해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문제 해결 전략을 사용한다. 잘못이나 상처를 부인하거나 잊어버리려고 할 수도 있고, 이들을 떠올리게 되는 자극을 피하려고 할 수도 있으며, 혹은 배우자나 자신을 벌하려고 할 수도 있다(Enright & Fitzgibbons, 2000/2011; Fincham, 2022; Gordon & Baucom, 2003; McCullough et al., 1997; Paleari et al., 2009). 이러한 부인, 회피, 보복과 같은 방식은 궁극적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은데, 왜냐

하면 부부는 일상생활, 자녀 양육, 가사 활동 등에서 계속해서 접촉하고 상호작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주고받은 잘못과 상처를 상하게 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므로 잘못이나 상처를 회피하거나 잊기 어렵다. 또한 보복이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격-공격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고리는 반복되고 악화되기 쉽다.

부부 문제로 인한 상처를 완화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연구자들과 상담자들은 용서를 제안하였다. 용서는 잘못된 사람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줄이고 긍정적 태도를 갖는 과정을 말한다(Enright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6; McCullough et al., 1997; Thompson & Snyder, 2003). 연구자들은 부부가 용서를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김기범, 임효진, 2006; 조영주, 2022; Davis et al., 2015; Enright & Fitzgibbons, 2000/2011; Reed & Enright, 2006). 또한 상담자들은 다양한 부부 용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용서의 효과를 입증하였다(강주희, 박종효, 2014; Woldarsky Meneses & Greenberg, 2014; Zuccarini et al., 2013).

용서는 연구보다는 상담 개입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고, 1990년대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용서에 관심을 갖고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에서의 용서를 연구하였다(Fincham, 2022; Fincham et al., 2006). 초기의 부부 용서 연구는 용서와 결혼 만족 간의 관계 및 용서와 양가성, 갈등, 귀인, 헌신, 공감 등 부부 관계 특성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Fincham et al., 2006). 이후에는 이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던

데, 중단 연구나 상담 개입 연구로 용서와 관계 만족 간의 인과 관계나 이들 관계에서 성격 특성이나 행동 양식과 같은 개인적 요인의 조절 효과 등이 연구되었다(Fincham, 2022). 이에 더하여 용서 연구 주제 또한 보다 다양하게 확장되었다. Fincham(2022)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부부 용서에 관한 연구를 리뷰하면서, 부부 용서 분야의 연구 주제가 미혼 커플과 구분하여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혼 관계에서의 자기 용서 연구, 정적용서와 부적용서를 모두 포함하는 용서 연구, 결혼 만족이나 관계 스트레스와 같은 맥락을 고려한 연구, 영성 및 종교와 용서와의 관계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Fincham, 2022). 한편 우리나라에서 부부 용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연구 주제도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다음 네 가지 점에 초점을 두어 선행연구를 확장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잘못된 배우자를 용서하는 배우자 용서에 더하여 잘못된 자신을 용서하는 자기 용서를 포함하여 부부 용서를 연구하고자 한다. 부부 용서 연구에서 배우자 용서에 비해 자기 용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부 자기용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조영주, 2022, 2024).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둘 다 포함하여 부부 용서를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명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는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와 배우자에게 준 상처에 대한 태도의 유사성과 차이를 탐색하고자 한다. 부부 용서에서 배우자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과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관점을 둘 다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데(Fincham, 2022), 동일인이 받은 상처와 준 상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는지 살

펴봄으로써 관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부부가 가장 크게 상처를 주고받은 잘못을 중심으로 부부 용서를 연구하고자 한다. 선행 부부 용서 연구에서 이자 관계에서의 용서 경향성과 특정 사건에 대한 용서를 구분하지 않고 연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용서와 용서의 효과 간의 관련성을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Fincham, 2022).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에게 가장 상처를 받거나 배우자에게 가장 상처를 준 잘못으로 잘못을 특정하고, 해당 사건과 해당 사건에 대한 용서 경험을 탐색할 것이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 관계 요인 및 잘못 관련 특성 요인을 하나의 모델 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된 반면, 결혼 만족이나 관계의 질은 많은 연구에서 용서의 결과로 연구되었다. 부부가 가장 크게 상처를 주거나 받은 잘못과 용서는 결혼 관계라는 보다 큰 맥락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관계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Fincham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용서를 예측하는 관계 요인으로서 결혼 만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특정 잘못에 대한 용서는 잘못 관련 특성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요인, 관계 요인 및 잘못 관련 특성 요인을 하나의 모델 안에 포함하여 용서에 대한 이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확인함으로써 용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1)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함께 다루며, (2) 동일인이 경험한 ‘받은 상처’와 ‘준 상처’에 대한 지각과 용서 태도를 비교하고, (3) ‘가장 크게 상처를 받은/준 잘못’

이라는 특정 잘못에 대한 용서에 초점을 맞추고, (4) 특질 용서, 결혼 만족, 잘못 관련 특성을 하나의 모형에 포함하여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 관계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또 관점에 따라서 자기 자신도 배우자도 잘못된 사람 혹은 상처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용서하는 사람 혹은 용서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Enright와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6)은 용서하기, 용서받기, 그리고 자기 용서를 용서의 삼각형(forgiveness triad)로 명명하였는데, 이들 간에는 용서의 주체와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즉 용서하기와 자기 용서는 자신이 용서의 주체라는 점에서 용서받기와는 구분되며, 용서하기와 자기 용서는 용서의 대상이 각각 배우자와 자신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여기서는 결혼 관계에서 용서의 주체가 자기 자신인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배우자 용서에서 자신은 상처받은 사람이면서 용서의 주체가 되며, 배우자는 잘못된 사람이면서 용서받는 대상이 된다. 한편 자기 용서에서 자신은 잘못된 사람, 용서받는 대상인 동시에 용서의 주체가 된다.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배우자 용서는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잘못으로 인한 상처 치유를 도우려고 노력할 때 잘못된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줄어들고 긍정적 태도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조영주, 2024). 한편 자기 용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배우자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지원하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줄이고 긍정적 태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조영주, 2024). 이 정의에서는 잘못된 사람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감소와 긍정적 태도의 증가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람의 용서 구하기가 강조되었다. 즉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모두 잘못된 사람이 잘못과 상처를 직면하고 인정한 후에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며, 나아가서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동반하는 것을 진정한 용서로 보았다. 연구자들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용서와 거짓용서를 구분 짓는 핵심이라고 본다(Fisher & Exline, 2006; Hall & Fincham, 2005). Conradi(2021)는 부부 용서에서 잘못된 배우자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고 후회하고 사과할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배우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너무 쉽게 혹은 성급하게 용서하거나 강요로 인해 용서했을 때는 오히려 잘못이 반복되고 부정적 상황이 유지되거나 심화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관계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질 수 있다(전은숙, 홍혜영, 2012; Fincham et al., 2006; McNulty, 2010). 용서는 잘못된 사람의 용서 구하기 없이도 가능하고 또 용서가 반드시 화해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정서적 친밀감을 핵심으로 하는 부부 관계의 유지와 회복을 위해서는 용서 구하기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부부가 가장 크게 상처를 주거나 받은 잘못 간에, 또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간에 관련성이 있는가? 부부 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는 파트너에게 사랑, 돌봄, 지지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파트너에게 이를 기대하고 원하는 관계이기 때문에(Johnson, 2004), 이러한 관련성은 상호의존 이론(interdependence theory; Kelley & Thibaut, 1987; Rusbult & Van Lange, 2003)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호의존 이론은 A와 B의

이자 관계에서 A의 행동은 A에 대한 B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B의 반응은 다시 B에 대한 A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부부 관계에서 A의 잘못으로 상처받은 B가 다시 A에게 상처를 주는 잘못을 하는 부정적 교환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용서받은 A가 B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 보상의 교환이 일어날 수 있다.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간의 관련성은 지각의 유사성 편향(perceptual similarity bias)과도 관련지을 수 있다(조영주, 2017; Fletcher & Kerr, 2010; Murray et al., 2002; West & Kenny, 2011).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자신의 특성을 타인에게 투사하여 타인을 자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조영주(2017)는 미혼 커플(A와B)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에서 A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은 B가 보고한 자신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통제 한 후에도 A가 B의 비난과 철회 의사소통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부부의 용서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배우자의 잘못, 상처 및 용서구하기에 대한 지각은 배우자의 말이나 행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만, 이에 더하여 자신의 경험을 투사하여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배우자를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간의 관련성은 이들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말하자면 뒤에서 기술할 특질 용서나 결혼 만족과 같은 요인이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둘 간에 관련성이 나타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차이에 대해서 보자면, 배우자 용

서와 자기 용서 간의 차이는 자기 위주 편향(self-serving bias)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위주 편향은 결과의 원인을 추정하는 과정인 귀인의 한 방식으로, 긍정적 결과는 자신의 공으로 내부 귀인을 하고 부정적 결과는 외부의 탓으로 귀인하는 경향성을 말한다(Mezulis et al., 2004). 자기 위주 편향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인지구조를 손상시키지 않고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Greenwald, 1980). 부부 관계에서 자기 위주 편향은 자신의 잘못에 비해서 배우자의 잘못을 더 의도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동기는 더 이기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결과적으로는 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Bradbury & Fincham, 1992). 이에 배우자의 잘못 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덜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에 비해 자신을 더 잘 용서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더하여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간의 차이는 이들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 관련 특성 요인, 개인 요인, 관계 요인과 각각의 영향 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둘 다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배우자 용서에는 대인관계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자기 용서에는 개인 내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질 용서, 관계 만족 및 잘못 관련 특성이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각각을 설명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개인의 특성은 배우자 용서 및 자기 용서와 관련이 있는데,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으로 조망수용능력, 공감,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증 등이 연구되었는데(김

기범, 임효진, 2006; 김현주, 안현의, 2011; Brudek & Kaleta, 2023; McCullough et al., 2003; Walker & Gorsuch, 2002), 이 연구에서는 개인 요인으로 특질 용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질 용서는 특정 대상, 특정 사건 및 상황에 대한 용서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이들 용서의 기저에 있는 개인의 일반적인 용서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McCullough et al., 2000). 특질 용서가 상황 용서 및 이자간 용서와 구분된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경험적으로도 연구되었다. Thompson 등(2005)은 특질 용서가 특정 대상이나 특정 잘못에 대한 용서와 .17~.25의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정문경(2017)은 특질 용서가 배우자에 대한 용서 경향성과 .24의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질 용서라는 개인 요인이 부부관계에서 가장 크게 상처를 주고받은 특정 잘못에 대한 배우자 용서 및 자기 용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질 용서에 더하여 이 연구에서는 부부 용서를 예측하는 관계 요인으로는 결혼 만족를 살펴볼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용서가 관계 만족에 이르는 방향을 가정해 왔으나, 본 연구는 결혼 만족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들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부부 용서와 관계 만족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부부 용서가 결혼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Chieurca & Vintila, 2019). 잘못을 한 배우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면서 배우자를 용서할 때, 잘못을 한 배우자도 이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부부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줄이고 건설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궁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영주, 2022; Braithwaite et al., 2011). 또한 배우자에게 잘못

을 한 자기를 용서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고 상처받은 배우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부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이 회복된다는 것이다(조영주, 2022; Fincham et al., 2006; Paleari et al., 2005, 2009).

이와 같이 용서가 결혼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결혼 만족도 용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관계가 친밀하고 중요할 때, 관계에 대한 만족과 헌신도가 높을 때 용서하고자 하는 경향도 높다고 주장하였다(Rusbult et al., 1991). 부부 관계가 만족스러울 때에는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서 잘못을 한 배우자와 자신을 더 잘 용서할 수 있다. 결혼 만족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은 확장편향의 개념과도 연결해 볼 수 있다. 확장편향은 이미 형성된 가치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지적 과정을 말한다(Nickerson, 1998). 즉 결혼 만족도가 높은 개인은 이와 일치하는 방식대로 배우자와 자신을 지각하면서 배우자와 자신의 잘못과 상처, 이로 인한 부적 반응에는 주의를 덜 기울이고 용서 구하기나 정적 반응은 선택적으로 더 잘 인식할 수 있다. 반면 결혼 만족도가 낮은 개인은 잘못, 상처, 부적 반응에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울 수 있다.

Braithwaite 등(2016)은 관계만족이 파트너 용서 경향성을 높이고 이는 다시 관계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관계만족과 파트너에 대한 용서 경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면서 학기초의 파트너 용서 경향성과 학기말의 관계만족 간에는 .20~.28(연구1), .14~.22(연구2)

의 상관을 보고하였고, 학기초의 관계만족과 학기말의 파트너 용서 경향성 간에는 .32~.41 (연구1), .22~.25(연구2)의 상관을 보고하였다. Pelucchi 등(2013)도 자기용서와 관계 만족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하면서 자기용서와 관계만족이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 만족이 용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배우자 용서 및 자기 용서와 결혼 만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용서는 잘못과 잘못으로 인한 상처를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Enright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6).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잘못이라는 용어는 상처나 해가 되는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transgression'으로, 용서 관련 선행 연구에서 위반, 가해 행동 등의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잘못의 종류와 범위는 다양한데, 잘못의 심각도, 의도성, 빈도, 발생 시기, 지속 여부 및 지속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잘못 관련 특성 요인은 특정 잘못에 대한 용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잘못이 심각하여 피해 정도가 클수록 용서 수준이 낮고(김기범, 임효진, 2006), 잘못을 한 시점에서 가까울수록 용서 수준이 낮으며(배준성, 2006), 잘못이 지속되고 있을 때 또 잘못의 지속 기간이 길 때 용서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였다(최인숙, 2005).

부부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잘못마다 심각도가 각기 다르며 지속 여부와 지속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 이에 잘못 관련 특성 요인과 용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잘못을 특정하여야 한다. 연구자들은 상처받거나 상처를 준 사건을 회상한 후 이를 기술하거나 작성하도록 하고 용서를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사

건에 대한 용서를 평가하였다. 이때 몇몇 연구자들은 설문 시점으로부터 지난 6개월 동안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사건을 회상한 후에 용서 관련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Fincham et al., 2007; Kachadourian et al., 2004; Paleari et al., 2009). 또 다른 방식으로 Gordon과 Baucom(2003)은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관계에서 주요 잘못을 기술하도록 한 후에 용서 관련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크게 상처를 주거나 받은 잘못으로 잘못을 특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 용서에 배우자 용서뿐만 아니라 자기 용서를 포함함으로써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용서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부 용서는 부부 관계에서의 용서 경향성과 특정 잘못에 대한 용서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부 관계에서 특정 잘못에 대한 용서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부부 관계에서 가장 크게 상처를 받거나 준 잘못의 특성과 이에 대한 배우자 용서 및 자기 용서를 살펴보고, 배우자의 잘못 및 배우자 용서와 자신의 잘못 및 자기 용서에 대한 관점의 관련성과 차이를 탐색할 것이다.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모두 대인관계 과정이면서 동시에 심리 내적 과정이지만, 배우자 용서에는 관계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자기 용서에는 개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 요인과 관계 요인으로 각각 특질 용서와 결혼 만족을 포함하여, 특질 용서, 결혼 만족 및 가장 크게 상처를 받거나 준 잘못 관련 특성(잘못의 심각도, 경과 기간, 지속 기간, 지속 여부)이 배우자 용서 및 자기 용서를 예측하는지, 예측 정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지각된 배우자의 잘못의 특성 (심각도, 경과 기간, 지속 기간, 지속 여부)과 자신의 잘못의 특성 간에, 그리고 배우자 용서 수준과 자기 용서 수준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지각된 배우자의 잘못의 특성과 자신의 잘못의 특성 간에, 배우자 용서 수준과 자기 용서 수준 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특질 용서, 결혼 만족 및 배우자의 잘못 관련 특성은 배우자 용서를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4. 특질 용서, 결혼 만족 및 자신의 잘못 관련 특성은 자기 용서를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5. 특질 용서, 결혼 만족 및 잘못 관련 특성이 배우자 용서 및 자기 용서를 예측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자료수집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고 (P01-202211-01-014), 설문 조사 기관을 통하여 온라인 설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목적, 참여 대상, 연구 방법, 소요 시간,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연구 참여의 익명성 등을 기술한 설명문을 읽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이 배우자와 주거나 받은 잘못과 상처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므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음을 알리고, 원한다면 중간에 설문을 그만두어도 된

다고 설명하였다. 설문 참가자는 설문이 끝난 후에 설문 기관을 통해서 소정의 보상을 받았다.

연구대상

기혼 남녀 총 617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배우자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준 경험이 없는 29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588명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자녀 수, 학력, 가구소득, 직업, 거주지의 빈도와 백분율, 그리고 결혼 기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부부 용서 척도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영주(2024)가 타당화한 부부 용서 척도를 사용하였다. 배우자 용서 척도와 자기 용서 척도 각각 부적용서, 정적용서, 용서 구하기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적용서는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적용서는 잘못된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며, 용서 구하기는 잘못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상처받은 배우자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거나 이러한 노력을 알아차리는 것을 말한다(조영주, 2024). 부적용서는 11개 문항(예, '남편/아내가 원망스럽다'/'내가 원망스럽다'), 정적용서는 7개 문항(예, '남편/아내를 격려한다'/'나를 격려한다'), 용서 구하기는 4개 문항으로 측정하며(예, '남편/아내는 나에게 사과했다'/'나는 남편/아내에게 사과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296	50.3	직업	전문가	76	12.9
	여성	292	49.7		기술공 및 중전문가	20	3.4
연령	20대	109	18.5	사무 종사자	257	43.7	
	30대	117	19.9	서비스 종사자	39	6.6	
	40대	120	20.4	판매 종사자	23	3.9	
	50대	117	19.9	농업, 임업, 어업숙련 근로자	3	0.5	
	60대	125	21.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	2.4	
	자녀 수	없음	126	21.4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	1.7
학력	1명	177	30.1	단순 노무 종사자	15	2.6	
	2명	253	43.0	군인	3	0.5	
	3명	30	5.1	학생	4	0.7	
	4명 이상	2	0.3	전업주부	103	17.5	
	중졸 이하	4	0.7	무직	21	3.6	
학력	고졸	94	16.0	거주지	서울	154	26.2
	전문대졸	82	13.9		인천·경기도	200	34.1
	4년대졸	333	56.6		강원도	16	2.7
	대학원 이상	75	12.8		대전·세종·충청도	53	9.0
	가구소득	1천만원 미만	10		1.7	부산·울산·대구·경상도	130
1천만원-3천만원	56	9.5	광주·전라도	33	5.6		
3천만원-5천만원	144	24.5	제주도	2	0.3		
5천만원-7천만원	167	28.4	전체	588	100.0		
7천만원-1억	160	27.2	M	SD			
1억 이상	51	8.7	결혼기간 (개월)	198.91	160.92		

그렇다)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 용서는 배우자가 자신에게 가장 크게 상처를 준 잘못을 떠올린 후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자기 용서는 자신이 배우자에게 가장 크게 상처를 준 잘못을 떠올린 후에 이와 관련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영주(2024)의 연

구에서 배우자 용서의 부적용서, 정적용서 및 용서 구하기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95, .94, .93이었고, 자기 용서에서는 각각 .95, .93, .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용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5였고, 자기 용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1이었다.

한국판 기질적 용서 척도

특질 용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Thompson 등 (2005)이 개발한 The Heartland Forgiveness Scale 을 홍현기 등(2016)이 타당화한 한국판 기질적 용서척도를 사용하였다. Thompson 등(2005)은 특정 상황과 특정 관계에서의 용서와 구분되는 개념을 ‘기질적 용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 척도는 선행연구에서 특질 용서를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되었다(오영희, 2011). 이 척도는 타인 용서뿐만 아니라 자기 용서와 상황 용서를 포함하여 넓은 범위의 용서 경향성을 측정한다(Thompson et al., 2005). 타인 용서, 자기 용서, 상황 용서의 하위요인은 각각 3개의 부정 문항과 3개의 긍정 문항을 포함하며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홍현기 등(2016)의 연구에서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부부 관계 질 지표

전반적인 결혼 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Norton(1983)이 개발한 부부 관계 질 지표(Quality of Marriage Index)를 장춘미(200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에 응답하고, 6번 문항은 10점 척도(1-절대적으로 불행하다; 10-완벽하게 행복하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결혼만족 점수는 6번 문항에 0.7을 곱한 후에 6개 문항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장춘미(2001)의 연구에서 부부 관계 질 지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남편과 아내 각각 .96, .9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8이었다.

잘못 관련 특성

배우자 및 자신의 잘못과 관련된 문항으로 잘못의 심각도, 발생 후 경과 기간, 지속 기간, 지속 여부를 측정하였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가장 상처받은 일을 떠올리고 이를 작성한 다음, 배우자의 잘못 관련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배우자에게 가장 상처를 준 일을 떠올리고 이를 기술한 다음, 자신의 잘못 관련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잘못의 심각도는 11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10-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고, 잘못의 발생 후 경과 기간과 지속 기간은 개월 수로 측정하였다.

자료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았다.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사분위 범위,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여 자료의 분포를 검토하였다. 연구문제 1의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간에 또 배우자 잘못 관련 변인과 자기 잘못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피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잘못 관련 특성 중 잘못의 지속 기간은 정규 분포를 보이지 않아 Pearson r 과 함께 Spearman ρ 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2의 이들 간에 차이를 살피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때 정규 분포를 보이지 않는 변인인 지속 기간에 대해서는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주분석으로 실시하여 배우자 잘못의 지속 기간과 자기 잘못의 지속 기간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항형 변인인 잘못의 지속 여부에서의 차이는 McNemar 검정을 주분석으로 사용하였고, t -검

정 결과는 보조 분석으로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3의 배우자 용서에 대한 특질 용서, 결혼 만족 및 배우자 잘못 관련 특성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배우자 용서를 준거 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사하게 연구문제 4의 자기 용서에 대한 특질 용서, 결혼 만족, 자기 잘못 관련 특성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기 용서를 준거 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위계적 회귀분석의 단계1에 투입하여 배우자 용서 및 자기 용서에 대한 이들의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서신화, 최연실, 2009; 최인숙, 2005; Rose et al., 2018)에서는 성별, 나이, 학력, 소득수준, 자녀수, 결혼 기간에 따라 용서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나이와 결혼 기간 간의 매우 큰 상관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관계 관련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결혼 기간을 통제 변인으로 남겨 두고 나이는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더하여 성별, 학력, 소득수준, 자녀수를 통제하였다. 단계2에는 개인 요인인 특질 용서를 투입하였고, 단계3에는 관계 요인인 결혼 만족을 투입하였으며, 단계4에는 잘못 관련 특성(심각도, 경과 기간, 지속 기간, 지속 여부)을 투입하여 설명력의 변화량과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단계4까지를 포함한 최종 모형에서의 회귀 계수, 유의확률, 신뢰구간, 부분상관 및 VIF를 도출하였다. 비정규성을 보이는 잘못의 지속 기간의 등분산성을 확인하고, 보조적으로 잘못의 지속 기간의 로그 변환값을 포함하는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변환 여부에 따라 회귀계수의 부호와 유의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은 잘못의 지속 기간을 제외하고는 왜도의 절댓값은 .11에서 2.36, 첨도의 절댓값은 .10에서 3.58로 대체적으로 정규 분포를 보였다(West et al., 1995). 잘못의 지속 기간은 왜도와 첨도가 큰 양(+)의 값을 보였으나, 기간의 실제 단위(개월)가 의미를 가지므로 변환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표 3에는 본 연구의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을 제시하였다. 종속변인인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간에는 .37($p < .001$)의 상관이 있었다. 배우자 용서는 결혼 만족 및 배우자 잘못의 심각도와는 큰 크기의 상관이 있었고($r = .68, p < .001$; $r = -.47, p < .001$), 특질 용서, 잘못의 지속 기간 및 잘못의 지속 여부와는 중간 크기의 상관이 있었으며($r = .29, p < .001$; $p = -.29, p < .001$; $r = -.26, p < .001$), 배우자 잘못의 경과 기간과는 작은 크기의 상관이 있었다($r = -.13, p < .001$). 한편 자기 용서는 특질 용서와 큰 크기의 상관이 있었고($r = .46, p < .001$), 결혼 만족 및 자기 잘못의 심각도와는 중간 크기의 상관($r = .26, p < .001$; $r = -.32, p < .001$), 자기 잘못의 지속 기간과 지속 여부와는 작은 크기의 상관이 있었으며($p = -.11, p < .01$; $r = -.14, p < .001$), 자기 잘못의 경과 기간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 = -.04, p > .05$). 배우자 잘못 관련 특성과 자기 잘못 관련 특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잘못의 심각도, 잘못의 경과 기간, 잘못의 지속 기간 및 잘못의 지속 여부에서 배우자 잘못과 자기 잘못 간에는 각각 .51, .73, .54, .27의 상관이 있었다($ps < .001$).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N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사분위 범위	왜도	첨도
특질 용서	588	4.39	.64	4.28	0.72	.59	1.20
결혼 만족	588	4.95	1.49	5.15	2.02	-.68	-.10
배우자 잘못							
배우자 잘못 심각도	588	6.37	2.59	7.00	3.00	-.68	-.15
배우자 잘못 경과 기간(개월)	588	89.57	110.28	37.50	113.00	1.61	1.97
배우자 잘못 지속 기간(개월)	588	29.85	95.50	3.00	24.00	3.95	18.63
배우자 잘못 지속 여부(종결=0)	588	.18	.39	-	-	1.64	.69
배우자 용서	588	3.60	.78	3.63	1.17	-.33	-.25
자기 잘못							
자기 잘못 심각도	588	6.03	2.59	6.00	3.00	-.48	-.37
자기 잘못 경과 기간(개월)	588	84.38	99.00	40.00	110.75	1.46	1.47
자기 잘못 지속 기간(개월)	588	23.61	54.75	1.73	3.09	4.25	22.33
자기 잘못 지속 여부(종결=0)	588	.12	.32	-	-	2.36	3.58
자기 용서	588	3.73	.59	3.77	0.86	-.11	-.31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특질 용서, 결혼 만족, 배우자 용서 및 자기 용서 간의 유의한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결혼 만족, 배우자 용서와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r=-.10, p<.05; r=-.18, p<.001$), 나이는 결혼 만족 및 배우자 용서와 부적 관련성이 있었으며($r=-.23, p<.001; r=-.18, p<.001$), 학력은 특질 용서 및 결혼 만족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r=.09, p<.05; r=.16, p<.001$). 소득 수준은 결혼 만족 및 배우자 용서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r=.13, p<.01; r=.10, p<.05$), 자녀 수는 결혼 만족, 배우자 용서 및 자기용서와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r=-.21, p<.001; r=-.13, p<.01; r=-.09, p<.05$), 결혼 기간은 결혼 만족

및 배우자 용서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r=-.23, p<.001; r=-.18, p<.001$).

연구문제 2에서는 가장 크게 상처를 받은 배우자의 잘못과 배우자에게 가장 크게 상처를 준 자신의 잘못 간,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배우자의 잘못에 비해서 자신의 잘못을 덜 심각한 것으로 보고하였고($\mu(587)=-3.18, p<.01$), 배우자의 잘못 및 자신의 잘못으로부터의 경과 기간 간의 차이는 대응 표본 t -검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mu(587)=-1.64, p>.05$). 잘못의 지속 기간과 관련해서는 배우자의 잘못에 비해서 자신의 잘못의 지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보고하였다($\mu(587)=-2.59, p<.05$). Wilcoxon 순위부

표 3. 주요 변인 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특질 양서	-											
2. 결혼 만족	.28***	-										
배우자 잘못												
3. 배우자 잘못 심각도	-.18***	-.39***	-									
4. 배우자 잘못 경과 기간 (개월)	.07	-.18***	.17***	-								
5. 배우자 잘못 지속 기간 (개월)	-.06(-.11)	-.35(-.44)	.29***(.44)	.47***(.55)	-							
6. 배우자 잘못 지속여부(종결=0)	-.14***	-.31***	.27***	.01	.24***(.35)	-						
7. 배우자 양서	.29***	.68***	-.47***	-.13***	-.29***(-.38***)	-.26***	-					
자기 잘못												
8. 자기 잘못 심각도	-.16***	-.09*	.51***	.08	.10***(.17)	.12***	-.18***	-				
9. 자기 잘못 경과 기간 (개월)	.04	-.18***	.15***	.73***	.40***(.48)	.03	-.12***	.11**	-			
10. 자기 잘못 지속 기간 (개월)	-.06(-.07)	-.26***(-.27)	.17***(.26)	.37***(.45)	.54***(.69)	.20***(.22)	-.18***(-.24)	.15***(.28)	.49***(.54)	-		
11. 자기 잘못 지속여부(종결=0)	-.17***	-.23***	.15***	-.02	.11***(.15)	.27***	-.15***	.24***	-.01	.26***(.31***)	-	
12. 자기 양서	.46***	.26***	-.14***	.00	-.06(-.16)	-.10*	.37***	-.32***	-.04	-.11***(-.18***)	-.14***	-

주. N=588. * $p < .05$, ** $p < .01$, *** $p < .001$. 제시된 상관계수는 Pearson r 임. 정규분포를 벗어나는 잘못의 지속 기간과의 상관계수는 Spearman ρ 를 주지표로 제시하였고 괄호 안에 Pearson r 을 제시함.

표 4. 배우자 용서 및 배우자 잘못과 자기 용서 및 자기 잘못 간의 대응표본 *t*-검증

		평균	표준 편차	평균차	표준 편차	<i>t</i>	Wilcoxon 순위부호 검정	McNemar 검정
심각도	배우자 잘못	6.37	2.59	-.34	2.56	-3.18**	-	-
	자기 잘못	6.03	2.59					
경과 기간	배우자 잘못	89.57	110.28	-5.22	77.04	-1.64	-	-
	자기 잘못	84.35	99.00					
지속 기간	배우자 잘못	29.85	95.50	-6.24	58.40	-2.59*	-2.58*	-
	자기 잘못	23.61	54.75					
지속 여부 (종결=0)	배우자 잘못	.18	.39	-.06	.43	-3.63***	-	12.22***
	자기 잘못	.12	.32					
용서	배우자 용서	3.60	.78	.13	.79	4.08***	-	-
	자기 용서	3.73	.59					

주. N=588. **p*<.05, ***p*<.01, ****p*<.001.

호 검정 결과에서도 상처받은 사건의 지속 기간과 상처를 준 사건의 지속 기간 사이의 순위수 차이가 유의하였다($Z=-2.58, p<.05$).

배우자의 잘못과 자신의 잘못의 지속 여부 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배우자의 잘못에 비해서 자신의 잘못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chi(587)=-3.63, p<.001$). McNemar 검정 결과 상처받은 사건의 지속 여부와 상처 준 사건 지속 여부의 분포는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량=12.22, $df=1, p<.001$). 구체적으로 443명(75.3%)는 둘 다 종결되었다고 보고하였고, 33명(5.6%)는 둘 다 지속 중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상처받은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상처 준 사건은 지속 중이라고 보고한 참여자는 37명(6.3%)였고, 상처받은 사건은 지속 중이나 상처 준 사건은 종결되었다고 보고한 참여자는 75명(12.8%)이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간의 차이도 유의하

였는데($\chi(587)=4.08, p<.001$), 자신에 대한 배우자의 가장 큰 잘못을 용서하는 정도보다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가장 큰 잘못을 용서하는 정도가 높았다.

연구문제 3은 배우자 용서에 대한 특질 용서, 결혼 만족 및 배우자 잘못 관련 특질의 설명력에 관한 것으로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단계1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만을 투입한 모형1을 보면, 성별, 학력, 소득수준, 자녀수 및 결혼기간은 배우자 용서를 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7, F(5,582)=9.04, p<.001$). 모형2에서는 개인 요인인 특질 용서를 추가하였고, 특질 용서는 배우자 용서를 8% 추가 설명하였다($\Delta R^2=.08, \Delta F(1,581)=55.88, p<.001$). 모형3에서는 관계 요인인 결혼 만족을 추가하였고, 결혼 만족은 배우자 용서를 34% 추가 설명하였다($\Delta R^2=.34, \Delta F(1,580)=389.78, p<.001$). 최종 모형인 모형4에서는 배

표 5. 배우자 응서에 대한 배우자 잘못 관련 변인, 특질 응서, 결혼 만족의 회귀분석

준거 변인	단계	예측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95% CI	β	t	part. r	VIF	B	SE	95% CI	β	t	part. r	VIF	
배우자 응서	단계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남성=0)	-.14	.05	-.23, -.05	-.09	-3.02**	-.086	1.10								
		학력	-.05	.03	-.10, .00	-.06	-1.91	-.054	1.11								
		소득수준	.02	.02	-.02, .06	.03	1.01	.029	1.07								
	단계2	자녀수	.04	.03	-.02, .10	.04	1.26	.036	1.50								
		결혼기간	.00	.00	-.00, .00	-.06	-1.46	-.042	2.42								
		개인 요인															
		특질 응서	.11	.04	.04, .18	.09	2.96**	.084	1.12								
	단계3	관계 요인															
		결혼 만족	.29	.02	.26, .33	.56	16.28***	.464	1.45								
		배우자 잘못 관련 특성															
		심각도	-.06	.01	-.08, -.04	-.21	-6.47***	-.184	1.31								
단계4	경과 기간	.00	.00	.00, .00	.04	1.03	.029	2.05									
	지속 기간 ¹⁾	.00	.00	.00, .00	-.02	-.44	-.013	1.51									
	지속 여부(총결=0)	-.04	.06	-.17, .08	-.02	-.71	-.020	1.19									
R^2			.07	.15	.49	.53											
F			9.04***	17.55***	80.80***	59.54***											
df			(5,582)	(6,581)	(7,580)	(11,576)											
ΔR^2			.07	.08	.34	.04											
ΔF			9.04***	55.88***	389.78***	11.81***											
df			(5,582)	(1,581)	(1,580)	(4,576)											

주. N=588. * $p < .05$, ** $p < .01$, *** $p < .001$.

1) 잔차 산점도를 활용하여 배우자 잘못의 지속 기간에 따른 잔차의 등분산성을 점검하였음.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우자 잘못의 지속 기간을 단순 로그 변환하고, 변환값을 포함하는 회귀 모형에서 배우자 잘못의 지속 기간의 효과를 보조적으로 살펴봄. 단순 로그변환한 배우자 잘못의 지속 기간은 평균 1.72, 표준편차 1.84, 왜도 .58, 첨도 1.03이었고, 회귀모형4에서 $B = .00$ ($SE = .02$, 95% CI = -.04 ~ .03), $\beta = .00$, $r = -.09$ ($p > .05$), $\text{part. } r = .003$, VIF = 2.01이었음. 즉, 배우자 잘못이 지속 기간을 변환했을 때와 변환하지 않았을 때의 회귀계수의 부호, 유의성 및 해석이 동일하였고 표 4의 분석 결과가 신뢰롭다고 볼 수 있음.

우자 잘못의 심각도, 잘못으로부터의 경과 기간, 지속 기간 및 지속 여부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고, 이들 잘못의 특성은 배우자 용서를 추가적으로 4% 설명하였다($\Delta R^2=.04$, $\Delta F(4,576)=11.81$, $p<.001$).

최종모형에서 각 예측변인의 VIF는 1.07~2.42 범위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우자 용서에 대한 각 변인의 고유 효과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배우자 용서가 높았고($\beta=-.09$, $t=-3.02$, $p<.01$), 특질 용서가 높을수록($\beta=.09$, $t=2.96$, $p<.01$), 결혼 만족이 높을수록($\beta=.56$, $t=16.28$, $p<.001$), 또 배우자 잘못의 심각도가 낮을수록($\beta=-.21$, $t=-6.47$, $p<.001$) 배우자 용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변량 상관분석에서는 특질 용서, 결혼 만족, 배우자 잘못의 심각도, 경과 기간, 지속 기간, 지속 여부 등 본 연구의 주요 변인 모두 배우자 용서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회귀분석 결과 특질 용서, 결혼 만족, 배우자 잘못의 심각도의 고유 효과는 유의하였고, 잘못의 경과 기간, 지속 기간 및 지속 여부의 고유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문제 4는 자기 용서에 대한 특질 용서, 결혼 만족 및 자기 잘못의 특성의 설명력에 관한 것으로,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단계1에 투입한 성별, 학력, 소득수준, 자녀수 및 결혼기간을 포함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자기 용서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R^2=.02$, $F(5,582)=1.81$, $p>.05$). 모형2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된 후에 개인 요인인 특질 용서는 자기 용서를 22% 설명하였고($\Delta R^2=.22$, $\Delta F(1,581)=162.72$, $p<.001$), 모형3에서 관계 요인인 결혼 만족은 자기 용서를 추가적으로 1% 설명하였고 이는 소폭이지만 유의하

였다($\Delta R^2=.01$, $\Delta F(1,580)=10.81$, $p<.01$). 최종 모형인 모형4에서는 자기 잘못의 심각도, 잘못으로부터의 경과 기간, 지속 기간 및 지속 여부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고, 이들 잘못의 특성은 자기 용서를 추가적으로 4% 설명하였다($\Delta R^2=.06$, $\Delta F(4,576)=11.62$, $p<.001$).

최종모형에서 각 예측변인의 VIF는 1.05~2.46 범위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용서에 대한 각 변인의 고유 효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자기 용서에 비해 여성의 자기 용서가 높았고($\beta=.10$, $t=2.86$, $p<.01$), 특질 용서가 높을수록($\beta=.39$, $t=10.57$, $p<.001$), 결혼 만족이 높을수록($\beta=.13$, $t=3.20$, $p<.01$), 또 자기 잘못의 심각도가 낮을수록($\beta=-.25$, $t=-6.67$, $p<.001$) 자기 용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변량 상관분석에서는 특질 용서, 결혼 만족, 자기 잘못의 심각도, 경과 기간, 지속 기간, 지속 여부 등 본 연구의 주요 변인 모두 자기 용서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회귀분석 결과 특질 용서, 결혼 만족, 자기 잘못의 심각도의 고유효과는 유의하였고, 잘못의 경과 기간, 지속 기간 및 지속 여부의 고유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문제 5에서는 잘못, 특질 용서 및 결혼 만족이 배우자 용서 및 자기 용서를 설명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표 5의 배우자 용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 표 6의 자기 용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주요 변인 중,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특질 용서, 결혼 만족 및 잘못의 심각도로 동일하였다. 개인 변인인 특질 용서가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설명하는 정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배우자 용서에 대한 특질 용서의 고유 효과는

표 6. 자기 용서에 대한 자기 잘못의 특성, 특질 애사, 결혼 만족의 회귀분석

준거 변인	단계	예측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95% CI	β	t	part. r	VIF	
자기 용서	단계1	인구통계적 특성	.12	.04	.04, .20	.10	2.86**	.100	1.05	
		성별(남성=0)	.00	.02	-.05, .05	.00	.03	.001	1.11	
		학력	.00	.02	-.04, .03	-.01	-.17	-.006	1.09	
		소득수준	-.01	.03	-.07, .05	-.02	-.35	-.012	1.52	
	단계2	자녀수	.00	.00	.00, .00	-.05	-.84	-.029	2.46	
		결혼기간								
		개인 요인	.36	.03	.30, .43	.39	10.57***	.368	1.14	
		특질 애사								
	단계3	관계 요인	.05	.02	.02, .08	.13	3.20**	.111	1.27	
		결혼 만족								
		자기 잘못 관련 특성	-.06	.01	-.07, -.04	-.25	-6.67***	-.232	1.11	
		심각도	.00	.00	.00, .01	.04	.79	.027	2.12	
	단계4	경과 기간	.00	.00	.00, .01	-.03	-.58	-.020	1.50	
		지속 기간 ²⁾	.03	.07	-.11, .17	.02	.42	.015	1.21	
		지속 여부(종결=0)								
R^2			.02	.23	.25	.30				
F			1.81	29.05***	26.86***	22.57***				
df			(5,582)	(6,581)	(7,580)	(11,576)				
ΔR^2			.02	.22	.01	.06				
ΔF			1.81	162.72***	10.81**	11.62***				
df			(5,582)	(1,581)	(1,580)	(4,576)				

주. N=588. * $p < .05$, ** $p < .01$, *** $p < .001$.

2) 자기 잘못의 지속 기간과 관련된 잔차의 등분산성 가정 위반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자기 잘못의 지속 기간을 로그 변환하여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함. 변환한 자기 잘못의 지속 기간은 평균 1.57, 표준편차 1.72, 왜도 .70, 첨도 -.75였고, 최종 모형에서 자기 잘못의 지속 기간의 계수는 $B = -.02$ ($SE = .02$, 95% CI = $-.05 \sim .02$), $\beta = -.05$, $t = -1.01$ ($p > .05$), part $r = -.035$, VIF = 1.73이었음. 자기 잘못이 지속 기간을 변환했을 때와 변환하지 않았을 때의 회귀계수의 부호와 유의도($p > .05$)가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표 6의 분석 결과가 신뢰롭다고 볼 수 있음.

0.70%(part $r=.084$)인 반면, 자기 용서에 대한 특질 용서의 고유 효과는 13.54%(part $r=.368$)로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관계 변인인 결혼 만족이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설명하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배우자 용서에 대한 결혼 만족의 고유 효과는 21.53%(part $r=.464$)였고, 자기 용서에 대한 결혼 만족의 고유 효과는 1.23%(part $r=.111$)에 그쳤다. 잘못의 심각도가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설명하는 정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잘못의 심각도는 배우자 용서의 3.39%(part $r=-.184$)를 설명하였고, 자기 잘못의 심각도는 자기 용서의 5.38%(part $r=-.232$)를 설명하였다.

논 의

부부는 일상을 공유하고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불일치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으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배우자로부터 가장 크게 상처받은 잘못에 대한 배우자 용서와 배우자에게 가장 크게 상처를 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기 용서를 탐색하고, 특질 용서, 결혼 만족 및 잘못 관련 특성이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의하고, 연구의 함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은 배우자에게 상처 준 잘못과 배우자로부터 상처받은 잘못 간의 관련성 및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간의 관련성에 관한 것인데, 이들 간에는 중간 크기에서 큰 크기의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부부 관계에서 한 사람(A)이 배우자(B)에게 잘못하여 상처를 주었을 때, B가 이에 대해 보복

하는 말과 행동으로 A에게도 상처를 주는 상호존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더하여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간에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상처의 회복을 돕는 태도를 보일 때 다른 사람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유사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 남녀의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의 부적 반응 간에는 .35의 상관이, 정적 반응 간에는 .30의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조영주(202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 상호 가해 및 피해 형태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며, 폭력의 가해와 피해 간에 관련성이 높다고 연구(최은희, 2021)와도 맥을 같이 한다. 잘못과 상처의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문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해행동 대인동기 척도(TRIM-12-K)는 ‘그 사람에게 복수할 것이다’나 ‘그 사람이 상처받아 비참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문항을 포함하였고(정성진, 2011), 결혼관계 공격행동 용서척도는 ‘나는 아내/남편이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내/남편에게 행동하고 싶다’라는 문항(정문경, 2017)을 포함하였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자기보고 상호 가해 및 피해 경험과 복수 동기가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배우자의 잘못은 배우자가 보고한 것이 아닌 응답자의 지각 즉 지각된 배우자의 잘못으로, 배우자의 잘못과 자신의 잘못 간의 상관을 해석할 때 응답자가 자신의 잘못과 유사한 방식으로 배우자의 잘못을 지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의

관련성은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가 모두 특질 용서 및 결혼 만족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는 뒤에서 더 논의할 것이다.

연구문제 2는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 잘못과 배우자로부터 상처를 받은 잘못 간, 또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간의 차이에 관한 것인데, 경과 기간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1에서의 유사성과 연구문제 2에서의 차이는 West와 Kenny(2011)가 진실과 편향 모형(Truth and Bias Model)에서 제안한 것처럼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즉, 배우자 잘못과 자신의 잘못, 그리고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간에는 상관도 있으면서 동시에 차이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 차이는 접근 가능한 정보 수준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각하고 평가할 때는 자신의 의도, 생각, 감정을 고려하는 반면, 배우자에 대한 이해는 주로 배우자가 표현한 말과 행동에 기초하며 배우자가 표현하지 않는 의도, 생각, 감정은 유추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에 비해서 배우자를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자신의 잘못에 비해서 배우자 잘못을 더 심각한 것으로, 오래 지속된 것으로, 또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지각했으며, 자기 용서에 비해서 배우자 용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Overall 등(2012)의 실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데, 그들의 연구에서는 파트너가 개선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 대화할 때, 화자가 배려했다고 보고한 정도에 비해서 청자가 배려받았다고 보고한 정도가 낮았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잘못을 더 크고 심각하게 지각하고 자신의 상처를 더 크게 평가하는 방

식으로 갈등과 불화를 배우자에게 귀인함으로써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와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문제 3은 특질 용서, 결혼 만족 및 배우자의 잘못 관련 특성이 배우자 용서를 설명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연구 결과 특질 용서와 결혼 만족은 배우자 용서를 정적으로 설명하고 잘못의 심각도는 배우자 용서를 부적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질 용서는 자기 용서, 타인 용서, 특정 대상 용서, 특정 상황 용서의 기저에 있는 개인의 용서 경향성을 말하는데, 특질 용서가 높을수록 즉 일반적으로 용서를 잘 하는 것은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가장 큰 잘못을 용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특질 용서와 배우자 용서 간의 이변량 상관계수는 .29였고, 부분 상관계수는 .08이었는데, 이는 특질 용서와 배우자에 대한 용서 경향성 간에 .24의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정문경(201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배우자 용서 경향성과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배우자의 특정 잘못에 대한 용서 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Kachadourian 등(2004)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들의 연구에서 아내는 배우자 용서 경향성이 높을수록 잘못의 심각도와 상관없이 남편의 실제 잘못을 용서하였고, 남편은 배우자 용서 경향이 높고 아내의 잘못이 심각할 때 아내의 실제 잘못을 용서하였다.

결혼 만족이 높을수록 배우자 용서도 높았는데,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 중에서 결혼 만족은 배우자 용서를 가장 크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도가 높을 때 용서의 경향이 높다고 한 Rusbult 등(1991)의 주장을 지지한다. 결혼 관계가 만족스러울 때 그 관계를 회복하고 지속

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고 따라서 용서와 같은 긍정적 갈등 해결 전략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관계 만족이 높을 때, 상처를 입은 사람이 분노나 회피로 반응하지 않고 잘못을 한 배우자도 방어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 함으로써 특정 잘못을 더 잘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결혼 관계가 만족스럽고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배우자의 행동이나 태도를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즉 배우자의 잘못을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부정적 상호작용에 비해서 배우자의 반성이나 사과와 같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선택적으로 알아차리기 때문에 용서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배우자 용서 경향성이 관계 만족과 큰 크기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조영주(2022)의 연구 결과와 Kachadourian 등(2004)의 연구 결과와도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는 방향성을 달리 하여 배우자 용서 경향성이 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 연구와 본 연구 모두 종단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 만족과 배우자 용서 간의 인과관계를 결론짓기는 어렵다.

잘못의 특성과 관련하여 이변량 상관분석에서는 잘못의 심각도, 경과 기간 및 지속 기간은 용서 수준과 부적 관련이 있었고, 잘못이 지속 중일 때에 용서 수준이 낮았다. 이는 잘못이 심각하고 피해가 클수록 용서 수준이 낮다는 선행 연구(김기범, 임효진, 2006)와 잘못이 지속되고 있을 때 또 잘못의 지속 기간이 길 때 용서 수준이 낮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최인숙, 2005)를 일부 지지한다. 그러나 잘못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잘못을 한 시점에서 가

까울수록 용서 수준이 낮다는 연구(배준성, 2006)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의 잘못 관련 요인 중 잘못의 심각도는 배우자 용서와 관련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요인을 고려했을 때도 배우자 용서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최종 모형에서 배우자의 잘못 관련 특성을 추가 투입했을 때 배우자의 잘못 관련 특성은 배우자 용서를 4% 추가 설명하였고, 배우자 잘못의 심각도는 배우자 용서의 3.39%를 설명하였다. 즉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에 대한 잘못의 심각도 효과의 절대 크기는 크지 않지만, 방향성과 크기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는 잘못의 심각도가 크고 상처가 클수록 배우자에 대한 부적 태도가 감소하고 정적 태도를 증가시키기 어려움을 함의한다. 이에 더하여 지속 기간과 지속 여부의 고유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지속된 기간이 길수록 또 잘못이 지속 중일 때 잘못의 심각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연구문제 4는 특질 용서, 결혼 만족 및 자기 잘못 관련 특성과 자기 용서 간의 관련성에 관한 것이다. 연구 결과, 특질 용서와 결혼 만족은 자기 용서를 정적으로 설명하였고 잘못의 심각도는 자기 용서를 부적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특질 용서는 자기 용서와 정적 관련이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특질 용서에 자기 용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자들(Mauger et al., 1992; Tangney et al., 1999; Thompson et al., 2005)의 입장을 지지한다. 다음으로 결혼 만족이 높을수록 자기 용서도 유의하게 높았고 그 효과 크기는 작았다. 본 연구에서 자기 용서와 결혼 만족 간에는 .23의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동거 커플과 부부를 대상으로 특정 잘못에 대한 용서를 연

구한 Pelucchi 등(2013)이 보고한 상관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자기 용서를 정적용서와 부적용서로 구분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결혼 만족은 정적용서 및 부적용서와 각각 .24, -.26의 상관이 있었고, 여성의 경우는 정적용서와의 상관은 .10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부적용서와는 -.34의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기 용서에 대한 자기 잘못 관련 특성의 설명력은 다음과 같다. 잘못 관련 특성을 추가 투입한 모형4에서는 자기 잘못 관련 특성은 자기 용서를 6% 추가 설명하였고, 그중 고유 효과가 유의한 잘못의 심각도는 자기 용서의 5.38%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에게 행한 잘못이 심각할수록 자기 용서가 어렵거나 자기 용서의 과정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신의 잘못이 심각할수록 수치심과 죄책감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자기 개념도 더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잘못이 클수록 잘못과 배우자의 상처를 직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명하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에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에 대한 부적 태도가 줄어들고 정적 태도를 증가시키는 자기 용서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연구문제 5는 특질 용서 및 결혼 만족이 배우자 용서 및 자기 용서 각각을 설명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우선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비교해 보면, 배우자 용서에 대한 특질 용서의 고유효과는 0.70%인 한편, 자기 용서에 대한 특질 용서의 고유 효과는 13.54%로, 자기 용서에 대한 특질 용서의 고유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 용서에 대한 결

혼 만족의 고유 효과는 21.53%, 자기 용서에 대한 결혼 만족의 고유 효과는 1.23%로, 배우자 용서에 대한 결혼 만족의 효과 크기가 자기 용서에 대한 효과 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타인, 자기 자신 및 상황 전반에 대한 용서 경향성인 특질 용서와 자기 용서 간의 상대적으로 더 큰 관련성은 자기 용서가 배우자 용서에 비해서 개인 내적 특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 용서 관련 선행 연구(Woodyatt & Wenzel, 2013)와 일관되게 배우자에게 잘못된 자기를 용서하는 자기 용서 과정은 잘못을 직면하고 자기 자신을 수용하며 내적으로 자기를 통합하는 과정에 초점이 있으며, 자기 개념을 회복하고 나아가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함의한다. 특질 용서는 배우자와의 이자 관계에서 배우자에게 가장 크게 상처를 받은 잘못을 용서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Fincham, 2022)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부부 용서 연구에서도 특질 용서, 이자 간 용서 및 특정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분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배우자 용서의 특징인지 일반적으로 타인 용서에서도 나타나는 것인지는 대상을 달리한 후속 연구를 통해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부부 용서에서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모두 부부 관계 맥락에서 일어나지만, 배우자 용서는 자기 용서에 비해서 대인 관계적 측면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파트너 용서뿐만 아니라 자기 용서가 관계지향적인 대처 방식으로 관계 안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본 선행연구(Pelucchi et al., 2013)의 관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배우자는 결혼 관계의 파트너로 결혼 만족은 배우자에 대한 태도를 상당 부분 설하는 한편, 자신의 삶에서 결혼 관계는 가족, 친지, 친구, 일 등 다양한 영역 중의 하나로 결혼 만족은 자신에 대한 태도를 상대적으로 적게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배우자와 자신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나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자기 용서와 결혼 만족 간의 관계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결혼 만족과 자기 용서 간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은 결혼 만족이 자기 용서에 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결혼 만족이 높을 때에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더 적극적으로 보상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 태도를 회복할 수 있다. 동시에 결혼 만족이 높은 사람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 자신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죄책감과 수치심을 더 크게 느끼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특질 용서 및 결혼 만족과는 달리 잘못의 심각도를 포함한 잘못 관련 특성이 배우자 용서 및 자기 용서를 설명하는 정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잘못의 심각도는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둘 다 예측하는 요인인데, 용서 과정이 잘못과 상처를 직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잘못의 심각도의 효과는 배우자 용서에서는 결혼 만족의 효과보다 작고, 자기 용서에서는 특질 용서의 효과보다 작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이 결과는 배우자 용서나 자기 용서가 잘못에서 시작하기는 하지만 용서 특질이나 결혼 만족과 같이 용서를 더 크게 설명하는 요인들이 있고, 부부가 크게 상처를 주거나 받은 잘못도 충분히 용서가 가능함을 함의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부부 관계에서 가장 크게 상처를 받거나 준 잘못에 대한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모두 특질 용서, 결혼 만족 및 잘못의 심각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특질 용서는 자기 용서와 상대적으로 더 큰 관련성이 있었으며, 결혼 만족은 배우자 용서와 상대적으로 더 큰 관련성이 있었고, 잘못의 심각도는 배우자 용서와 자기용서를 유사한 수준으로 설명하였다.

연구의 학문적 함의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측정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과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부부 용서 연구를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부부 용서는 주로 배우자 용서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배우자에게 잘못된 자신을 용서하는 자기 용서 연구는 제한적이다(조영주, 2022; Pelucchi et al., 2013; 2015).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측정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척도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간의 관련성과 차이를 명확하게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척도를 활용하여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측정하였고, 이들 간의 상관뿐만 아니라 차이를 보다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연구에서는 부부 관계에서 가장 크게

상처를 주거나 받은 사건을 중심으로 특정 잘못에 대한 부부 용서를 연구하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부부 용서 연구를 보다 정교화하였다. 부부 용서 연구에서 부부 관계에서 용서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용서를 의미하는지, 또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용서라면 어떤 잘못에 대한 용서인지를 구분함으로써 부부 용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인 파트너 용서 경향성에 비해서 맥락이 강조되는 특정 사건에 대한 용서가 결혼 만족과의 관련이 작다는 주장이 있다 (Braithwaite et al., 2016). 본 연구 결과는 가장 크게 상처를 받은 잘못에 대한 배우자 용서와 관계 만족 간의 관련성이 매우 크지만, 선행 연구(서정선, 신희천, 2007)에서 보고한 일반적인 파트너 용서 경향성과 결혼 만족 간의 관련성에 비해서는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개인 요인, 관계 요인 및 잘못 관련 특성을 한 모형에 포함하여 이들이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설명하는 고유 설명력의 상대적 크기를 살펴봄으로써,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의 기제가 다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배우자 용서에는 관계 요인인 결혼 만족의 기여도가 가장 크고, 자기 용서에는 개인 요인인 특질 용서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용서 개입 상담에 함의하는 바가 있다.

부부 상담에 대한 함의

부부 용서는 상처를 치유하고 결혼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조영주, 2022; Enright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6; Woldarsky Meneses, & Greenberg, 2014; Zuccarini et al., 2013). 본 연구와 같이 부부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근거 기반 용서 개입과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연구 결과 상처를 가장 크게 주고 받은 잘못의 심각도, 개인의 특질 용서 및 부부 관계 결혼 만족이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담자는 이들 요인을 탐색하고 평가하고 용서 개입에 활용함으로써 용서 개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배우자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지각의 차이는 부부간 잘못과 상처와 관련하여 지각 왜곡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배우자의 잘못을 심각하게, 자신의 잘못을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지각하고 부부 갈등을 배우자의 잘못으로 귀인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자존감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부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서 진정한 용서에 이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이에 부부 상담에서 상담자는 두 사람이 배우자의 잘못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 또한 보다 명확하게 직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표현한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애착을 포함하는 내적 욕구, 감정, 생각을 탐색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Conradi, 2021).

다음으로 잘못이 심각하고 상처가 클수록 용서하기 어려운데, 상담자는 내담자가 지각하는 잘못의 심각도를 평가하고 내담자가 경험하는 용서의 어려움을 타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용서의 과정은 발현 단계, 결정 단계, 작업 단계, 결과 단계를 포함하는데(Enright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6), 잘못이 심각할수록 잘못을 직면하고 상처를 인

식하는 과정,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 배우자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모두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는 잘못을 한 사람이 사과하고 반성하며 자신이 입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성급한 용서가 되지 않도록 상담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 만족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자기 자신을 더 잘 용서한다는 결과는 부부용서 개입에서 잘못과 용서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결혼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데이트를 한다든가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등의 활동으로 전반적인 결혼 만족을 증진시킬 때,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와 태도를 갖게 되고 잘못으로 상처를 준 배우자와 자신을 용서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다시 결혼만족을 더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혹은 두 사람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추억을 회상하는 것과 같은 활동은 결혼 만족도를 재평가함으로써 용서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다음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기술하고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설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에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응답자가 기억이나 주관적인 지각에 근거하여 응답하였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동일한 주체가 배우자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배우자에게 상처

를 준 자신의 잘못을 배우자가 용서하는 것은 포함하지는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부로부터 쌍자료를 수집하여 배우자와 자신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받기를 포함하여 연구함으로써, 용서와 관련된 부부의 상호작용을 두 사람의 관점을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한국 기혼 남녀로,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문화적, 맥락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다른 문화권의 기혼 남녀나 사귀거나 동거 중인 커플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잘못 관련 특성은 잘못의 심각도, 발생 후 경과 기간, 지속 기간, 지속 여부를 포함하였고 각각을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중 잘못의 심각도는 가장 상 처받은 사건 혹은 상처를 준 사건을 기술한 다음 ‘그 사건은 얼마나 심각하였나요?’라는 질문에 0에서 10점의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건의 심각도는 사건의 종류, 가해자의 의도,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요소를 측정하는 복수의 문항을 포함하고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인한 척도를 활용하여 사건의 심각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시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알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배우자와 자신의 가장 큰 잘못의 심각도가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했지만, 보고하는 시점의 용서 수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잘못의 심각도 등을 회상하여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종단 연구를 통하여 현

재의 용서 수준이 잘못된 사건 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결혼 만족이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에 대한 결혼 만족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시차를 두고 반복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결혼 만족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과 용서가 결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이 연구에서는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 간에 상관 및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를 상호의존성, 자기 위주 편향, 지각의 유사성 편향 등으로 설명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상호의존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포함하거나 귀인이나 지각의 편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를 설계함으로써 이들 간의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통제된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성별에 따라서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에 차이가 있었고, 배우자 용서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높고, 자기 용서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성차가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는데, 후속 연구에서 부부 용서에서의 성차가 심도 있게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주희, 박종효 (2014).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용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상담학연구*, 15(6), 2245-2267.
 김기범, 임효진 (2006). 대인관계 용서의 심리적 과정 탐색: 공감과 사과가 용서에 미

치는 영향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177-190.
 김현주, 안현의 (2011). 공감능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57-174.
 배준성 (2006). IPC 통제소재 및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개념과 용서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신화, 최연실 (2009). 기혼남녀의 용서 연구: 용서과정 관련변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4), 81-101.
 서정선, 신희천 (2007).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87-106.
 오영희 (2011).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 799-813.
 장춘미 (2001). 스트레스가 결혼 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 지지 및 갈등해결행동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은숙, 홍혜영 (2012). 성인애착과 용서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3(3), 1159-1179.
 정문경 (2017). 한국판 부부관계 공격행동 용서 척도(MOFS-K)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8(2), 333-350.
 정성진 (2011). 한국판 가해행동 대인동기 척도(TRIM-12-K)의 타당화 연구. *학문과 기독교 세계관*, 2, 209-225.
 조영주 (2017). 미혼 커플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서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3), 417-443.
 조영주 (2022). 배우자 용서와 자기 용서의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이 관계만족 및 삶의만

- 죽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3), 765-792.
- 조영주 (2024). 부부 용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6(3), 875-904.
- 최은희 (2021). 이성관계 불만족과 데이트폭력 가해 관계의 성별 비교: 비합리적 신념과 불안정 애착의 조절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인숙 (2005). 부부의 위기에 대한 용서경험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7). 이혼동향조사. 이혼사유별 이혼 건수. 자료갱신일 2024-04-1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tblId%3DDDT_1B85004%26orgId%3D101%26
- 홍현기, 이정은, 김진경, 강규현, 이수미, 현명호 (2016). 한국판 기질적 용서 척도 (K-HF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2), 607-621.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92). Attributions and behavior in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4), 613-628.
- Braithwaite, S. R., Mitchell, C. M., Selby, E. A., & Fincham, F. D. (2016). Trait forgiveness and enduring vulnerabilities: Neuroticism and catastrophizing influence relationship satisfaction via less forgiv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4, 237-246.
- Braithwaite, S. R., Selby, E. A., & Fincham, F. D. (2011). Forgivenes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Mediating mechanis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5(4), 551-559.
- Brudek, P., & Kaleta, K. (2023). Marital offence-specific forgiveness as mediator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older couples: Perspectives on Lars Tornstam's theory of gerotranscendence. *Aging & Society*, 43(1), 161-179.
- Chiurca, M. V., & Vintila, M.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forgive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within couples. *Social Research Reports*, 11(1), 26-34.
- Conradi, H. J. (2021). Relative contributions of actor and partner forgiveness and attachment to couples' functioning. *Family Relations*, 72(4), 1032-1048.
- Davis, D. E., Ho, M. Y., Griffin, B. J., Bell, C., Hook, J. N., Van Tongeren, D. R., DeBlaere, C., Worthington, E. W., & Westbrook, C. J. (2015). Forgiving the self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2(2), 329-335.
- Enright, R. D., & Fitzgibbons, R. P. (2011). *용서 심리학: 내담자의 분노 해결하기*. (방기연 역) 시그마프레스. (원본 출판 2000년)
- Enright, R. D.,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6). Counseling within the forgiveness triad: On forgiving, receiving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Counseling and Values*, 40(2), 107-126.
- Fincham, F. D. (2022). Forgiveness in marriage. In E. L. Worthington & N. G. Wade (Eds.), *Handbook of forgiveness* (2nd ed., pp. 142-152). Routledge.

- Fincham, F. D., Beach, S. R. H., & Davila, J. (2007).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forgiveness and conflict resolution in marriag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3), 542-545.
- Fincham, F. D., Hall, J., & Beach, S. R. H. (2006). Forgiveness in marriag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Family Relations, 55*(4), 415-427.
- Fisher, M. L., & Exline, J. J. (2006). Self-forgiveness versus excusing: The roles of remorse, effort, and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Self and Identity, 5*(2), 127-146.
- Fletcher, G. J. O., & Kerr, P. S. G. (2010). Through the eyes of love: Reality and illus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Bulletin, 136*(4), 627-658.
- Gordon, K. C., & Baucom, D. H. (2003). Forgiveness and marriage: Preliminary support for a measure based on a model of recovery from a marital betrayal.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1*(3), 179-199.
- Greenwald, A. G. (1980). The totalitarian ego: Fabrication and revision of personal history. *American Psychologist, 35*(7), 603-618.
- Hall, J. H., & Fincham, F. D. (2005). Self forgiveness: The stepchild of forgiveness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5), 621-637.
- Johnson, S. M. (2004). *The practice of emotionally focused marital therapy: Creating connections*. Brunner/ Mazel.
- Kachadourian, L. K., Fincham, F., & Davila, J. (2004). The tendency to forgive in dating and married couples: The role of attachmen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11*(3), 373-393.
- Kelley, H. H., & Thibaut, J. W. (1978). *Interpersonal relations: A theory of interdependence*. Wiley-Interscience.
- Mauger, P. A., Perry, J. E., Freemant, T., Grove, D. C., McBride, A. G., & McKinney, K. E. (1992). The measurement of forgiveness: Preliminary research. *Journal of Psychology & Christianity, 11*(2), 170-180.
- McCullough, M. E., Fincham, F. D., & Tsang, J.-A. (2003). Forgiveness, forbearance, and time: The temporal unfolding of transgression-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 540-557.
- McCullough, M. E., Hoyt, W. T., & Rachal, K. C. (2000). What we know (and need to know) about assessing forgiveness constructs. In M. E. McCullough, K. I. Pargament, & C. E. Thoresen (Eds.),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299-319). Guilford Press.
- McCullough, M. E., Worthington, E. L., & Rachal, K. C. (1997).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2), 321-336.
- McNulty, J. K. (2010). Forgiveness increases the likelihood of subsequent partner transgressions in marriag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4*(6), 787-790.
- Mezulis, A. H., Abramson, L. Y., Hyde, J. S., & Hankin, B. L. (2004). Is there a universal positivity bias in attributions? A meta-analytic review of individual, developmental,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self-serving attributional bias. *Psychological Bulletin, 130*(5),

- 711-747.
- Murray, S. L., Holmes, J. G., Bellavia, G., Griffin, D. W., & Dolderman, D. (2002). Kindred spirits? The benefits of egocentrism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4), 563-581.
- Nickerson, R. S. (1998).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2), 175-220.
- Norton, R. (1983). Measuring marital quality: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 141-151.
- Overall, N. C., Fletcher, G. J. O., & Kenny, D. A. (2012). When bias and insecurity promote accuracy: Mean-level accuracy in couples' bias and tracking conflict discuss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5), 642-655.
- Paleari, F. G., Regalia, C., & Fincham, F. D. (2005). Marital quality, forgiveness, empathy, and rumination: A longitudinal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3), 368-378.
- Paleari, F. G., Regalia, C., & Fincham, F. D. (2009). Measuring offence-specific forgiveness in marriage: The marital offence-specific forgiveness scale (MOFS). *Psychological Assessment, 21*(2), 194-209.
- Pelucchi, S., Paleari, F. G., Regalia, C., & Fincham, F. D. (2013). Self-forgiveness in romantic relationships: It matters to both of u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4), 541-549.
- Pelucchi, S., Paleari, F. G., Regalia, C., & Fincham, F. D. (2015). Self-forgiveness in romantic relationships: 2. Impact on interpersonal forgiveness. *Family Science, 6*(1), 181-190.
- Reed, G. L., & Enright, R. D. (2006). The effects of forgiveness therapy on depression, anxiety, and posttraumatic stress for women after spousal emotional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5), 920-929.
- Rose, A., Anderson, S., Miller, R., Marks, L., Hatch, T., & Card, N. (2018). Longitudinal test of forgiveness and perceived forgiveness as mediators between religiosity and marital satisfaction on long-term marital relationship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46*(4), 356-374.
- Rusbult, C. E., & Van Lange, P. A. M. (2003). Interdependence, interaction, and relationship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351-375.
- Rusbult, C. E., Verette, J., Whitney, G. A., Slovik, L. F., & Lipkus, I. (1991). Accommodation processes in close relationships: Theory and preliminary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1), 53-78.
- Tangney, J. P., Boone, A. L., Fee, R., & Reinsmith, C. (1999). *Multidimensional forgiveness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George Mason University.
- Thompson, L. Y., & Snyder, C. R. (2003). Measuring forgiveness. In S. J. Lopez & C. R. Snyder (Eds.),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pp. 301-31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hompson, L. Y., Snyder, C. R., Hoffman, L., Michael, S. T., Rasmussen, H. N., & Billings, L. S., Heinze, L., Neufeld, J. E., Shorey, H.

- S., Roberts, J. C., & Roberts, D. E. (2005). Dispositional forgiveness of self, others and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73*(2), 313-360.
- Walker, D. F., & Gorsuch, R. L. (2002). Forgiveness within the Big Five personality model.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32*(7), 1127 - 1137.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Sage.
- West, T. V., & Kenny, D. A. (2011). The truth and bias model of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18*(2), 357-378.
- Woldarsky Meneses, C., & Greenberg, L. S. (2014). Interpersonal forgiveness in emotion-focused couple therapy: Relating process to outcom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0*(1), 49-67.
- Woodyatt, L., & Wenzel, M. (2013). Self-forgiveness and restoration of an offender following an interpersonal transg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2*(2), 225-259.
- Zuccarini, D., Johnson, S. M., Dalgleish, T. L., & Makinen, J. A.(2013).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in emotionally focused therapy for couples: The client change process and therapist interventio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9*(2), 148-162.

원 고 접 수 일 : 2025. 08. 04

수정원고접수일 : 2025. 11. 05

게 재 결 정 일 : 2025. 12. 02

Spousal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Associations with Trait Forgiveness, Marital Satisfaction, and Transgression-Related Characteristics

Young-ju Cho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nd distinctions between spousal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for the most hurtful marital transgression, as well as the influence of trait forgiveness, marital satisfaction, and transgression-related characteristics. Survey data from 588 married men and women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alyses, paired-samples *t*-tes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rated their own transgressions as less severe than those of their spouses, and they reported higher levels of self-forgiveness than spousal forgiveness. Second, both spousal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were significantly negatively associated with transgression severity and significantly positively associated with trait forgive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Third, trait forgiveness showed a stronger association with self-forgiveness, whereas marital satisfaction was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spousal forgive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in terms of theoretical implications, practical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study limitations.

Key words : Spousal Forgiveness, Self-Forgiveness, Trait Forgiveness, Marital Satisfaction, Transgression-related characteristics